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7월 21일(금)
(음력 윤 5월 28일)

Пятница

21 июля 2017 г.

№ 28(116745)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17일(월)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주정부와 한양대학교 국제병원과의 추가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협약서에 서명한 사할린주정부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 대행과 한양대 의무부총장 김경현 의료원장. (이예식기자 촬영)

주정부, 한양대 국제병원과 추가 협약서 체결

지난 17일(월) 사할린주를 방문한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대표단(단장 김경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 포함 총 5명)이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주정부와 한양대학교 국제병원과의 추가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할린주정부 측에서는 사회복지 문제를 담당한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 대행이 한국대표단을 접견했다.

한국 의료진들을 환영한 부수상 대행은 사할린정부가 의료보전 분야에서 한국과 맺은 긴밀한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건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기본 목적 중 하나는 최신 진단 기술의 도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데 있다며 세미나와 연수 등 교류를 통해 의료전문가들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자이체브 부수상 대행은 지적했다. 사할린주는 한양대학교 병원과 2009년부터 협력해오고 있다. 그동안 학술회, 세미나도 공동으로 개최했고 사할린의 의사들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부수상은 특히 암 환자 치료에 대한 한국 의료진들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김경현 한양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과 양측의 의료발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처음 사할린을

방문했다고 하였다. 그는 앞으로 교류를 통해 사할린의 의료진들에게 한국에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영상 세미나, 영상 판독 자문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정부에서는 <나눔 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사할린에서 위중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고 김 부총장은 언급하고 한양대병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으로 사할린과 캄보디아의 두 환자에게 시술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부총장은 "우리 민족이 사는 사할린과 인연을 맺고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은 "한양대병원은 지난 수년 동안 사할린 주정부와 함께 러시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동포를 비롯한 사할린 주민들의 의료보전 분야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한양대학교 병원과 사할린주정부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라고 했다.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윤호주 원장은 한양대 서울병원은 설립된 지 45년이 되었고 국제병원은 14년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한국에서 대학병원으로서는

가장 먼저 국제병원을 개원하고 외국환자를 유치하여 현재 국제병원을 내원하는 환자 1위는 러시아인이고 2위는 카자흐스탄인으로 내원하는 환자를 국내 환자들처럼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윤원장은 앞으로도 사할린과 긴밀한 교류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체결된 추가 협약서에는 만남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기재되었다. 즉, 방사선 치료법 영상세미나 실시, 사할린주 의사들의 영상 판독 자문 지원방법 논의, 사할린주 의사들의 복강경 시술 연수를 위한 세부 방안 논의, 한양대학교 병원과 사할린주 보건성 간의 원격진료 상담에 대한 방법 논의 등이다.

체결식이 있던 후 사할린주중앙센터에서 영상판독 <복부 장기관(간, 췌장 12지장존, 췌장, 담도, 신장과 복막) 암 질환에 대한 방사선진단과 방사선치료>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는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손순영 과장, 강보경 의사가 참가했다.

한편, 한양대병원 대표단은 주정부와 체결식을 앞두고 아침에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과 만나 사할린한인동포 의료지원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법을 논의했다.

(본사기자)

단신

국방부, 사용하지 않는 토지 사할린주에 넘겨

이번 주초에 모스크바로 출장을 간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먀코는 러시아연방 국방부 차관 루슬란 찰리코브와 만나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민간에게 넘기는 데 대한 문제를 심의했다. 논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동부군관구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돌린스크구역과 유즈노쿠릴스크구에 소재하는 12구역(토지)들을 민간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첫 부지는 이번 7월에 인수할 계획이다.

주정부와 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사할린주 알렉산드르 체르노웨이 제1부지사 감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예산 수익 20억루블리 증가

지난 19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두마 의원 정기 회의에서 시예산 수정을 심의했다.

시예산의 일반수익을 20억600만루블리를 증가시켜 212억5000만루블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출액은 229억1000만루블리로 증가 추세여서 적자는 그대로 남게 된다. 추가 수익은 주예산에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리, <에브리카>하계영재학교 열어

지난 18일(화) 토마리에서 제28회 <에브리카>영재학교 하계세션이 열려 사할린주 내 각 학교 9-11학년생 64명이 21일간 교육캠프에서 생화학과 물리수학 부문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영재학교는 발굴된 학생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과학적 연구 훈련을 심화시키며 기획연구 활동에 몰입하게 하려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진행해오고 있다. 오전에는 강의와 실습, 오후에는 연구활동을 실시한다. 이외 여가의 시간으로 아동들을 위한 스포츠와 흥미로운 창작을 하는 모임이 조성되기도 한다.

<에브리카>학교는 역사가 28년된 토마리 제2 중학교에서 2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 세션에는 올레그 코제먀코 사할린주지사가 다녀갔고 올해 <에브리카>학교 세션 개강에는 사할린주교육부 대표와 토마리 알렉산드르 코벨레브 시장이 참석했다.

감사드립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017년 5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할린주미술박물관에서 한국의 유명한 목판화가 이철수 회백의 개인전이 열렸었다. 사할린 전시 개막을 다녀간 이철수 판화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지난 주일에 이철수 판화가는 이철주 문화기획자를 통해 사할린주 미술관에는 <바람찬 날에 꽃이여 꽃이여>, 이번 전시를 협조한 새고려신문에는 <생명의 노래>작품을 기증했다.

미술관과 새고려신문사는 이에 이철수 화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문재인 대통령은 사할린 방문할까?

부산 각계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할린을 방문해 주세요' 호소문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뒤 귀국길에 사할린 방문 요청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당한 희생자 묘역과 교포 만나달라고 요청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과 사할린 교포 지원 단체들이 오는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제강점기 한인들이 강제 징용돼 끌려갔던 사할린을 방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할린한인역사기념사업회, 사할린주 한국한인회, 사할린주 한인협회 등 4개 단체와 하일민 부산대 명예교수, 배다지 부산 민족광장 상임대표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 30여명은 12일 "문재인 대통령님. 통한의 땅 사할린을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냈다.

이들 단체와 인사들은 호소문에서 "사할린 교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사할린의 작은 항구 오토마리(현 코르사코프)로 몰려갔지만 일본 배는 일본인만 태우고 갔다. 사할린에 강제 징용당한 4만여 명 가운데 해방 뒤 고국행 배를 기다리다가 추위와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4000여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9월 6일부터 이틀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

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해 문 대통령께서 수락했다. 문 대통령이 돌아가는 길에 사할린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은 문 대통령이 사할린을 방문하면 일제강점기 탄광 등에 끌려간 한인들 가운데 해방 뒤 한국으로 오지 못한 채 숨진 고인들이 많이 묻혀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공동묘역을 참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할린에 사는 교포들과 후손들을 만나서 위로의 말씀을 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각계 인사들은 "만약 문 대통령이 사할린을 방문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리인수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의 사할린 방문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할린 교포들에 모국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17.07.12)

7월 23일, 한국 전통문화 계승 사할린 청소년캠프 열려

사할린에서 제3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캠프>가 이번 주 초에 열리고 주말부터 또 하나의 캠프 기획이 개최된다.

23일(일) <투나이차>휴양소에는 대한민국 광복 72주년 기념 <2017 한국 전통문화 계승 사할린 청소년캠프>가 개최된다. 이 캠프는 구미 동북아청소년협의회 주최로, 사할린한국교육원, 코르사코브 한인회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는 코르사코브 학생 30명, 코르사코브 1세 어르신들과 한인회 관계자, 한국어 지도교사와 교육원 관계자, 동북아청소년협의회 대표단(11명) 등 총 70명 정도이다.

주최 측은 캠프 개최의 목적이 사할린한인 1세대의 증손, 고손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선조의 이주역사를 인식시키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깨우침으로 모국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캠프일정은 발대식, 팀별 토론회, 한인1세대와 함께 하는 한국음식 만들기(비빔밥), 특강, 한국역사 퀴즈 대회, 한복 패션 대회, 플레시몹, K-팝 축제 등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본사기자)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한편 위로금 지급소송은, 현재 강제동원 희생자를 관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위로금 지급 대상을 '한국 국적자'로 제한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대상 선정 기준에 의해 사할린 한인들은 희생자로 관정되고도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송을 건 변호사들은 이것이 사할린 한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두 소송은) 사할린 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할린 한인들이) 한국 국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받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2세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변호사/ 지구촌동포연대(KIN) 주최 '해방되지 못한 사할린 한인 문제' 포럼)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와 사할린 한인 사이에 국적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2년 동안 한국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한 내용은 "국적 판정 절차가 있는데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한국 정부)와 원고(김명자씨) 사이에 국적 확인에 대한 분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행정부가 법원에 우선하여 국적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국민은 귀화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 취득이 아닌 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답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소견은 달랐다. "원고가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기에" 둘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국적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국적 판정 절차를 통해 원고가 손쉽게 국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할린에서 살아온) 원고가 한국에 들어와 상당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국적 판정 절차를 하는 것이 원고에게 적절한 수단인지 회의적"이라고 말함으로써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계속)

동포학생 16명, 한인 역사를 배우며 야스노모르스크에서 휴식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18일(화) 제3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캠프가 열렸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있는 개막식에서 주최 측을 대표한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10-15세의 학생 16명을 환영하며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특히 사할린한인사를 더 알아보고 한민족 문화를 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기원했다. 박회장은 캠프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김홍지 사할린주노인회 회장 겸 주한인회 부회장을 비롯한 캠프 임직원과 보조들을 소개했다.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은 전년들에 사할린의 남부지역을 돌면서 코르사코브구역(투나이차 휴양바사), 홈스크구역(밤부츠키 휴양바사, 네웰스크구역(야스노모르스크에 휴양바사)에서 하루씩 머물면서 사할린 한인 역사를 배우고 한민족 문화를 체험했다면 이번에는 4일간 야스노모르스크에 휴양지에서 숙박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캠프를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네웰스크시를 시찰하고 고르노사위드스크 탄광도 탐방할 계획이라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한인역사캠프의 상징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행사는 문화센터 앞마당에 건립된 사할린한인희생자위령비 앞에서 참배로 이어졌다.

김홍지 회장은 사할린 여러 구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민족 제사 의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조상들에게 큰 절을 올리는 법도 가르쳐주었다. 위령제 진행에 주한인이산가족협회 이수진 명예회장도 김 회장을 도왔다.

캠프 참가학생들은 21일(금) 13시에 캠프에서 사할린한인문화센터로 돌아와 TV방송국 촬영팀에 하는 인터뷰를 마무리로 해산하게 된다.

이번 역사캠프는 주한인회와 노인회가 개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한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В 1645–1647 годах под власть империи Цин перешла основная территория Китая южнее реки Янцзы. Кита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узилось до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й провинции Гуанси, Гуйчжоу и Юньнань, остававших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династии Мин.

В 1648–1649 годах произошло массовое восстание против власти завоевателей. Два полководца из числа китайцев-предателей – Цзинь Шэнхуань и Ли Чэндун, считая себя обделёнными,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маньчжуров и перешли на сторону империи

Мин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армиями. Во многих районах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и Южного Китая началось массовое движение против власти завоевателей. Под властью династии Цин осталось всего восемь провинций, но и на их территории разгоралась антиманьчжурская борьба. Однако антицинские силы никак не могли объединиться и действовать сообща, каждый полководец и политик поступал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усмотрению, на свой страх и риск, каждый преследовал свои цели.

В критический период военного 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ерелома 1648–1649 год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ргона приняло действенные меры для удержания завоёванных китайских провинций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а Цин. Это позволило цинским войскам перейти от отступления и обороны к активным действиям. Ликвидировав в 1649 году самые крупные очаги сопротивле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 северу от Янцзы, Доргонь двинул освободившиеся крупные силы в южные провинции. В 1650 году рухнули последние остатки империи Мин, сопротивление манчжурам оказывали лишь крестьянские повстанчес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в Западном Китае. После внезапной смерти Доргона в 1650 году крупные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прекратились до весны 1652 года.

В 1652 году повстанческие армии перешли в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в Южном Китае, и почти четыре года цинские военачальники ничего не могли поделать с их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ыми и грозными армиями, хотя и имели численное превосходство. Измотанные более чем десятилетней войной, цинские войска не могли сломить силы сопротивления, а те не имели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наступления. В итоге на ряд лет установилос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равновесие сил.

Бросив в наступление в конце 1654 – начале 1655 годов огромные воинские силы, в том числе и армии китайских «трёх князей-данников», манчжурам удалось осуществить перелом и перейти в контрнаступление. В ходе упорных и ожесточённых боёв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силы сопротивления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Став господствующей группой в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манчжуры весьма скоро восприняли китайскую культуру, однако их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Маньчжурия, никогда не была полностью интегрирована с покорённым внутренним Китаем, сохраняя юридические и этнические отличия. Для контроля над доступом этнических китайцев (ханьцев) в центральную и северную Маньчжурию (то есть за пределы Ляодуна), для поселения или сбора женьшеня и других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в середине XVII века была даже сооружена специальная Ивовая изгородь. Лишь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осле потери Приамурья и Приморья, цин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осознало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селить северо-восточные окраины страны и укрепить госбюджет, и открыло дорогу массовому заселению Маньчжурии китайцами.

В XVII–XVIII веках европейцы часто собирательно называли маньчжуров и монголов,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коренными жителями северной Азии «татарам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ходившие в состав Цинской империи Маньчжурия и Монголия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в Западной Европе как «Китайская Тартария». Отсюда происходит и название 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Географы начала XIX в. выступали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лова «Маньчжурия» как более точного; к примеру, одна из глав вышедшего в Париже в 1804 г. всемирной географии (часть раздела «Китайская империя») озаглавлена: «Зависимые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а, или Маньчжурия, Монголия, Калмыкия, Сифан, Малая Бухария,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обыкновенно подпадающие под неправильное название ТАРТАРИЯ». Лишь в течение XIX в. слово «Маньчжурия» стало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ым.



Изображение 1. Маньчжурский и китайский император Шуньчж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 РООСК ОТЧИТАЛИСЬ О РАБОТЕ ВО 2-ОМ КВАРТАЛЕ

В минувшую субботу, 15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 27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23 человека.

На повестке стояли следующие вопросы: отчет о работе РООСК во 2-ом квартале 2017 г., обсуждение проекта Устава РООСК, а также разное.

С докладом по первому вопросу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а немного рассказала о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сообщила, что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шел ремонт на 1-ом этаж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ККЦ).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зал, туалеты, холл, поменяли покрытие пола. Зал радует новым освещением.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2-ой этаж, побелить стены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омогли члены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 апреле под эгидой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состоялось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вещани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НГ, на котором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посещения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репатриации, треб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 правительствам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Впервые из требований был исключен пункт о посещении детьми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уехали на ПМЖ в РК и по состоянию здоровья не могут приехать на побывку в Россию. В этом году 250 человек смогут навещать своих родителей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выделе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Сун Ок сообщила, что в июне состоялась еще одна поезд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на бесплатное лечение и диагностику в РК. Этот проект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этот раз на лечение выехало 25 пожилых людей и 16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из числа членов семей. Поездка, проживание, питание и лечение за счет принимающей стороны.

РООСК участвовал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ражданском форуме, провела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блюд.

В мае ККЦ принял у себя международную конференцию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организованную Всемирным фондом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КОВИНЕР).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также посетили участники круиза, прибывшие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х было более 1000 человек. Для них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просмотр ролика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фотовыставка (автор Ли Е Сик), а также проведены экскурсии по памятника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е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РООСК оказала посильную помощь в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Жемчужина Сахалина», предоставив помещение для репетиций, а также выставив свой приз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 имидж-вокал студии «Дебют» при ККЦ).

РООСК выиграла два гр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дин из них касается сохранения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торой – проект облагораживания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памятника 27-ми невинно убиен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в августе 1945 г. (близ Пожарского).

В рамках первого гранта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состоятся фестивали-концерт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кже была выпущена в свет книжка-раскраска по мотивам корейских сказок, был объявлен конкурс рисунков, однако дети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очень пассивны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етьми други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 сожалением констатировала лидер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Она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в этом году традиционное празднова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состоит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9 августа (третья суббота августа)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С сообщением по вопросу проекта Устава организации выступил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О Тин Ха. Он подробно разъяснил внесенные изменения и дополнения в Устав.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сделал сообщение о продолжающейся работе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прах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И на этом заседании правления не обошлось без взаимных упреков между РОО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рейцев.

На взгляд стороннего наблюдателя, все дело в недостаточном обмене между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нформацией по тем или и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что впоследствии оборачиваются недомолвками, обидой и поводом для выяснения отношений. Хотелось бы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этими двумя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едь от этого страдают люди и дело.

Виктория Б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молоде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18 июля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молодеж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сахалинские ребята от 10 до 15 лет стараются узнать о прошлом своих предков, сохрани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память о тяжелом периоде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и,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узнать о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х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рганизатором лагеря ста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уратором проекта с первого года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является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На открытии лагеря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Она пожелала ребятам узнать больше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есело и с пользой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на базе отдыха в Ясноморске, которая стала местом базирования лагеря в этом году.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Ким Хон Ди (Виктор Николаевич)

объяснил, что в прежние годы место стоянки лагеря все время менялось (Тунайча, Бамбучки, Ясноморское). В этом году впервые решили остано-

виться на одном месте. За это время ребят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выедут в Невельск, посетят шахту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Сразу после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открытия лагеря, на котором ребята уже щеголяли в «лагерных» футболках и кепках, состоялся поминальный обряд. Поминальный стол был накрыт перед памят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 жертвам насильствен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площадке перед корейским культурным центром. Ким Хон Ди подробно рассказал школьникам, как проводится обряд.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совершить поклоны.

В этот раз набор в лагерь прошел по районам области.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ребята из Углегорска, Поронайска, Анивы, Долинска, Быкова, Корсако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т.д.

16 школьников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наставников и вожатых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дней погрузились в атмосферу осмысления прошлого, познания нового, а также веселого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21 го июля.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мерен увеличить военные расходы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намерен за время св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оборонных расходов с 2,4% до 2,9% ВВП. Об этом он заявил 18 июля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оенного командования.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что нов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ом, однако все усилия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ессмысленны без наличия превосходящей оборонной мощи.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среди столпов, на которых держится государство, самые главные - это экономика и армия. Если первый столп направлен на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жизни людей, то последний является гарантом само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армия должна сохранять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смену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или командования. Он призвал военных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оенной реформы.

Россия отправил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2.400 тонн муки

17 июля в СК доставлено 2.400 тонн российской пшеничной муки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Всего программ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тправку в КНДР 5.200 тонн муки. О первой доставке сообщило посольство России в Пхеньяне на своей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Фейсбук».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204 тонны пшеничной муки выгружены в городе Чхонджине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Пукто. Она на грузовиках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в провинцию Янгандо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детского печенья. Оставшаяся часть гуманитарного груза будет отправлена в город Хыннам провинции Хамгён-Намдо. В сообщени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российское судно «Нарва» прибудет в Хыннам в течение суток. Позже в Чхончжин планируется доставить еще 2.700 тонн муки. В марте и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Россия отправляла в КНДР через Всемир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2.500 тонн и 2.400 тонн мук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 Сеуле обсудили поправки в Конституцию

По случаю 69-ой годовщины принятия Основного закона страны 17 июля в Сеуле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поправок в Конституцию.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идные политик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бывший спике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Чон Ый Хва, бывший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Ли Ган Гук и экс-премьер Ли Хон Гу. В качестве главной причины недоверия народа к политикам они назвали «имперскую президентскую систему РК», при которой фактически вся власть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уках президента.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заняты лишь борьбой за власть, отставив в сторону принципы диалог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и дебатов сошлись во мнении, что нужно добиться разделения власти через измен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и. Он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должен быть направлен не только на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ю власти, но и на улучшение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успешно реализовать изменение главного закона страны, учитывая советы участников дебатов.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18 июля в Сеуле открылась девятая ежег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торой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420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из 29 стран мира. Выступая на открытии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Ли Нак Ён отметил, что среди десятков тысяч языков, существующих во всём мир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нимает 13-ое место в плане глоба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Это достижение связано с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остом страны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н обещал на уров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частники конференции обсуждают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ции языковых курсов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школ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рейские мужчины чаще берут отпус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численность мужчин-работников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взявших отпуск по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составила 5.101 человек. Это на 52,1%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ля мужчин из 45 тыс. человек,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этим отпуском, составила 11,3%.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отметили, что нынешний рост показателя связан с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м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ечь, в частности, идёт о системе,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отцы, берущие этот отпуск после супруги, в течение трёх месяцев получают до 100% базов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умма выплат максимально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1.700 долларов. (RKI)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Южна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центробежная и центростремительная сила воссоединения

Если посмотреть на карту, то мы увидим, что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кружен четырьмя мировыми сверхдержавами. 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это довольно редкий случай. При этом США и Япония имеют с полуостровом океаническую границу, а Россия и Китай – сухопутную.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я, все эти державы всегда конкурировали между собой. В середине прошлого века во врем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апогея достигло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СССР и СШ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чиная с 2008 года, когда разразился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и поменялась глобальная расстановка сил, обостряется конкуренция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скому полуострову не раз приходилось находиться в центре глобальной борьбы между мировыми державами. Например, в 1592 году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войны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кеанической Японии Токэми Хидэёси попросил руководство Кореи предоставить проход войска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с государством Мин. Дважды: в 1894 году с Китаем и в 1904 году с Россией Япония начинала войну.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их двух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победу одерживала Япония, и Корея становилась ее колонией. А в 1945 году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Япония капитулировала, но Корея вновь стала жертвой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и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две части.

С момента разделения единого народа прошло уже 72 года 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растет. Но все понимают,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вигаться к объединению Коре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лгожданное воссоединение наконец-то произошло, необходимо решить две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Первая – имеет внешние корни, а вторая связана с внутренней обстановкой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Так как разделение Кореи произошло под влиянием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и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тоже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постоянным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извне, необходимо разработать эффектив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механизмы, которые бы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стабилизации обстановки.

Следует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сама ситуация в регио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чень сложная. В частности появляются все новые противоречия между США и Китае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мощь последнего значительно усилилась, и Пеки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свое влияние на мировой арен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ША принимает контрмеры в отношении Поднебесной. Например, во время правления Барака Обамы интересы США из Европы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переместились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регион. Также обостряется ситуац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ША. То есть Корея, находясь в центре этих событий, вновь становится заложницей глобальных игр.

Россия и Япония,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мирн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 делают активных шагов, чтоб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этому процессу. Китай стреми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ак некий противовес, сдерживающий возрастающее влияние в

регионе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То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ть так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глобальные игроки был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объединении Кореи. В частности, в случае воссоединения спадет общая напряженность в регионе, начнет решаться ядерный вопрос, появя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новых инвестиций, будет дан новый импульс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улучшится положение дел с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Но вполне очевидно, что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 произойдет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дипломатов и политиков. Необходима также интеграция между гражданским обществом, своеобразная центростремительная сила, подталкивающая Север и Юг друг к другу. Это и есть вторая внутренняя задача.

Если обратиться к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аздел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без такого встречного внутреннего движения достичь объединения не удавалось.

Если взять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Италию, а там объединение произошло в 1861 году, исклю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этом сыгра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Сардинского королевства Бенсо ди Кавур. Но достичь этого было бы трудно, если бы не вклад Джузеппе Мадзини и Джузеппе Гарибальди, за которыми шел простой народ.

В объединении Германии, которое произошло в 1990 году, тоже огромную роль сыграло общество. Конечно неоценимый вклад внес канцлер ФРГ Гельмут Коль. Но до этого в 1972 году занимавший тогда должность канцлера ФРГ Вилли Брандт, положил начало этому процессу, заключив договор с ГДР, после чего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начался обмен людскими и материальными ресурсами. То есть центростремительная сила между людьми двух стран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и это стимулировало процесс объединения.

К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связь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ась. Разумеется, на это было множество как объективных, так и субъективных причин. Но главное требование, которое выдвигает мир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 это сворачивание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Мы все являемся свидетелями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обострилась ситуац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на фоне всего этого сегодня нужно искать пути стаби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и активизации центростремительной силы, то есть возобновлен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двух стран нужно уделять должное внимание.

Необходимо налаживать контак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тех областях, которые не касаются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и политики. В частности, в 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е, в спорте, 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т.д.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 необходимо не возводить песочные замки, 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о комплекс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и самую активную роль в этом должно играть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Юн Ен Гван
докт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лит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Джона Хопкинса (США),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инист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2003 – 2004 гг).,
почетный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 2016 год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 посол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С рабочим визитом на острове побывал депутат парламента Японии, призер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1994 года по конькобежному спорту, посол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Хори Манабу.

Цель приезда - осмотр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на которых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оревнования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которые пройдут на Сахалине в феврале 2019 года. В ни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юн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20 стран. Им предстоит состязаться в 8 видах спорта: сноуборд, биатлон, лыжные гонки, прыжки на лыж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шорт-трек, хоккей и горнолыжный спорт. Сейчас в области идет масштаб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 большому спортивному событию.

С гостем из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встретилс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изит Хории Манабу на Сахалин проходит в период, когда в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происходят значимые события.

-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главы наших государств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и Синдзо Абэ демонстрируют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и определяют курс на активизацию двух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успешных примеров двухсторонн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олгих лет мы развиваем спортивные контакты по дзюдо, баскетбол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каратэ и другим видам спорта. Сегод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и спорта высших достижений, предоставляя возможность молодым и талантливым спортсменам области в полной мере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й потенциал.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же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инимать первые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 подчеркнул Антон Зайцев.

В ответном слове Хории Манабу заверил, что приложи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беих регионов.

Сахалин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расширяют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сфере диагностики и лече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17 июля заключ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Сеу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линико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г».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усилить совместную борьбу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



ласти.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и проректор медиц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директор медицинского центр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г» Ким Кён Хон.

Да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 одно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в Азии, оно не только оказывает медицинские услуги, но и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 занимаетс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Многи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центр осуществляет совместно с университетскими клиникам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строится на основе нескольких соглашений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и медицинскими учреждениям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оведены совместные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больным с острым коронарным синдромом и нарушением мозгового кровообраще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и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ей.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организовали несколько стажировок.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наметилась тенденция к снижению смертности от онкопатологии, эта проблема по-прежнему требует к себе самого пристального внимания, - подчеркнул в ходе беседы с прибывшей на Сахалин делегацией корейских медиков Антон Зайцев. -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читает важнейшими вопросы по развитию на Сахалине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службы для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выявления и лечения та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Опыт коллег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ля нас чрезвычайно значим.

- Заверяю, что клиника «Ханьянг» готова проводить стажировки сахалинских врачей, делиться лучшим опытом. Думаю, что такая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ринесет важные для Сахалина результаты, - сказал в свою очередь Ким Кён Хон.

Сегодня в з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гос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оведут семинар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онкологов. Его тема: «Лучевая диагностика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органов брюшной полости (печени, поджелудочной железы, области желчевыводящих протоков, почек и забрюши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предусмотрены и другие форм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Ожидается,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врачи получают знания о новых методах интерпретации радиологических снимков и проведения лапароскопических операций.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линик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ьянг» обсудя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телемедицин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казания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ахалинские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и в период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готовы к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коренными жителями обла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ращение поступил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т двух организаций - «Союза рыболовцев колхозов и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иков Сахалина».

Как показал проведенный опрос, говорится в документе, «все пользователи, участки которых граничат с местам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лиц,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оренн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народам, готовы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добыче 300 килограммов лососей на человека, установленных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Авторы письма при этом выразили вполне обоснованное опасение, что коррективы в возможные объемы вылова могут внести пока еще очень слабые подходы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Напомним, в текущем году организация рыбалки для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в Охинском и Ногликском районах оказалась под угрозой срыва, поскольку в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не были своевременно направлены заявки на традиционное рыболовство,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действующи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С целью соблюдения конституционных прав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своевременно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с пользователями рыбопромысловых участк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обыча лососе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рен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рганизована в рамках любительского и спортив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Путевки и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бесплатно из расчета 90 килограммов горбуши и 210 килограммов кеты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105 килограммов и 195 килограммов - в Ногликско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стречает первы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Сабантуй

Для участия в праздник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региональ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ей тата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ираются гости из республик Татарстан и Саха (Якутия), Приморского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ев,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Амурской 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ей.

Сабантуй - праздник,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окончанию весенних полевых работ. О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адежду и любовь к родной земле, духовное един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Сабантуя.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аздник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другие регионы, входящие в состав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Откроется Сабантуй в пятницу 21 июля в 16-30 кон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Они состоятся на поле за совхозом «Тепличный»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центром праздника станет стадион «Спартак». Здесь в 9-00 начнутся футбольные матч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анд.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мечено на 12-00. В обширной программе - выступления мастеров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ов и автоном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иаспор, а также концерт именитых артистов из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целая серия выставок, ярмарки с блюд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и изделиям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оле народных игр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в боях мешками на бревне, беге с коромыслом, с яйцом, в мешках. Состоятся состяза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татарской борьбе «Кэреш», гиревому спорту, перетягиванию каната, армрестлингу, самбо,

пауэрлифтингу. Также будет организована сдача норм ГТО.

Ю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ждет детская площадка с конкурсами, викторинами, спортивными состязаниями и катанием на лошадях.

Не забыли организаторы и о людях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Для них проведут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ась активная кормозаготовительная кампания

Заготовка кормов на зимне-стойловый период ведется во всех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региона. С ходом работ на полях совхоз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орсаковский» ознакомились руковод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е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Светлана Пахомов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 совхозе содержится почти 4 тысячи коров. Половина стада - животные мяс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нескольких пород: герефордской, абердин-ангусской, казахской белоголовой и шароле. Заготовить для них доста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рмов помогает современная техника, приобретенная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 В совхозе 54 новые сельхозмашины,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техника, позволяюща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 время уборки упаковывать сено в полиэтилен. Задача совхоза заготовить около 30 тысяч тонн кормов. И это вполне реально, благодаря полному переоснащению. Для сравнен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смогли заготовить всего 20 тысяч тонн сенажа за три летних месяца. А сейчас за пять дней - 7 тысяч тонн, это очень высокий результат, - делит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ветлана Пахомова.

В селе Раздольном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уже построены и заполняются новые силосные траншеи. Размер каждого бетон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90 на 18 метров. Их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 защитить силосную массу от доступа воздуха, проникновения воды и промерзания. Всё это делается, чтобы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обеспечить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сочными кормами. Осенью здесь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овая молочно-товарная ферма на тысячу голов.

- Животноводств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Реализуются крупные проекты по увеличению поголовья молочного и мясного скота. Сейчас ведется важная и ответственная работа - сенокошение и кормозаготовка. Развернулись все сельхоз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Задача - обеспечить животных высококачественными кормами на всю предстоящую зиму. От этого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привес скота, уровень надоя и так далее. В этом году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выйти на самообеспечение грубыми и влажными кормами и завозить только концентрированные корма, - подчеркнул, подводя итоги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бласти Александр Якуша.

Курилы становятся доступнее для туристов

13 июл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ось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ым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о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Южно-Курильска (остров Кунашир) и Курильска (остров Итуруп) и обратно для туристов, путешествующих в рамках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тура, снизится на 11 тысяч рублей. Ранее для них проезд стоил 26 тысяч рублей. Теперь перелет на Курилы и обратно обойдется туристам в 15 тысяч.

Свои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а также трех региональ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 «Амист», «Омега-Плюс» и «Гидрострой-тур». Реализация соглашения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л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снижении общей стоимости туров без потери качества услуг.

Как отметила Наталья Иванов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отмечено существенное снижение турпотока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Бронирование туров в 2017 году сократилось на 38,4%. Причина этих явлений - изменение системы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воздушных перевозок по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Если прежде авиакомпании бюджет возмещал часть стоимости всех билетов, то с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субсидии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только на граждан, в установленном порядк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этому стоимость перелетов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туристов значительно возросла. При этом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леты обходятся гораздо дешевле. Например,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Южно-Курильска и обратно - 11800 рублей, до Курильска и обратно - 11000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2017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개막

48개국 132명 한글학교 교사 참가한 가운데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서 모국연수 진행

전 세계에서 각지에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은 17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전 세계 48개국 132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7박 8일 동안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토크콘서트, 한국어 교수

대들이 한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학교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 이곳에서 배운 교수법을 우리 아이들이 한민족으로써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연수 이틀째인 18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연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령별 교수법과 현장 활용 교수법을 비롯해 그림, 연극, 마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매개 교육 등



법, 현장 활용 교수법, 한국어 수업설계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연수 첫날인 17일에는 입소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스타강사' 강용철 EBS강사가 '한글학교에서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강 강사는 "교사는 사람을 키우는 숭고한 사람"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오신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거주국에 돌아갔을 때 한층 전문적이고 행복한 마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연수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한글학교 교사들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만찬이 열렸다.

주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전파하는 교사와는 달리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글은 물론, 모국의 뿌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우수한 교육 정보를 교환하며 네트워크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미숙 캐나다 빅토리아 한글학교 교사는 "한국문화에 대해 무관심했던 재외동포 차세

대들이 한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한글학교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며,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 이곳에서 배운 교수법을 우리 아이들이 한민족으로써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마련된 프로그램인 '나의 수업 클리닉'에서는 한국어 교육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과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그 밖에 이소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겸임교수의 '연극을 활용한 한글수업', 김차명 시흥 정왕초등학교 교사의 '비주얼 씹킹' 특강, 김태진 한국문화 국제교류운동본부 연구위원의 '한지공예' 특강 등 흥미 유발을 위한 다양한 교직 소양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며,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을 역임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도 강사로 초빙돼 역사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설계에 대해 강의한다.

참가자들은 23일(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역할을 알리는 '한글학교가 우리 민족을 이어줍니다' 카드섹션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인 24일(월)에는 '해외 한국 오류 시정을 위한 한글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박기태 반크(VANK) 단장의 강연을 들은 후 폐회식을 끝으로 연수 일정을 마무리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23

한국 고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했지요?

(전호의 계속)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아/어/여 빠지다 "чрезмерно...", "очень сильно..."

Указывает на чрезмерную степень действия или состояния, имеющих негативный характер. Используется для усиления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имеры:

식량 부족에 말라 빠진 아이들의 온 몸에는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다.

→ Даже если он говорит, что не имеет отношения к этому делу, я не могу верить его словам.

그의 초라해 빠진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

→ Увидев его жалкий образ, я прослезился.

이 나무 집은 썩어 빠졌다.

→ Этот деревянный дом сильно прогнил.

(2) -아/어/여 치우다 "полностью..."

Указывает на полное и скорейшее за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с устранением его результатов.

Примеры:

그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웠다.

→ Он умял всю еду.

밤 9시가 넘자 주인은 남은 물건들을 썩 값에 다 팔아 치웠다.

→ После 9 часов вечера хозяин по-дешевке распродал оставшиеся товары.

경찰이 오기 전에 범인은 모든 증거를 없애 치웠다.

→ Подозреваемый уничтожил все улики до приезда полиции.

(3) 아/어/여도 과언이 아니다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Примеры:

우리들은 형제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мы партнеры.

한국은 정보기술 분야의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если сказать,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Сказать, что тот человек - мой благодетель, не будет преувеличением.

(4) -았/었/였던지, -던지 "столько..., что...", "так было..., что..."

Указывает на большую меру или степень соверш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В продолжении обычно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очетании со словом ???.

Примеры:

아이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던지 배탈 날까 걱정이 되었다.

→ Ребенок столько съел, что я начал беспокоиться за его желудок.

날씨가 얼마나 춥던지 손이 썩아 퍼지지 않았다.

→ Было так холодно, что сжатые руки не разжимались.

꼬마는 놀이가 재미있었던지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았다.

→ Малыш так увлеченно играл, что уже не вспоминал о маме.

(5) -았/었/였던들 "если бы..."

Указывает на разочарование или раская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прошлых действий. Основное действие выражает противоположность реально существующим фактам ил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осуществления чего-либо. Предложение может оканчиваться на -(으)ㄴ 것이다, -(으)ㄴ 텐데.

Примеры:

내가 돈이 좀 더 많았던들 좋은 섹스폰을 샀을 겁니다.

→ Если бы у меня было бы побольше денег, я купил бы хороший саксофон.

네가 더 똑똑했던들 내 말을 이해했을 텐데…….

→ Если бы ты был поумнее, то бы понял о чем я говорю.

우리가 알았던들 밤 늦게라도 갔을 텐데…….

→ Если бы мы знали, мы бы хоть поздно, но пошли.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70명 채용! 국내 사전교육 받는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이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4박 5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3기' 국내 사전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지난 7일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70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현지 적응 및 성공적인 인턴십 수료를 위한 직무·소양·안전 교육을 비롯해 현지 문화 이해, 글로벌 매너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글로벌 한상 대표로 필리핀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이상명 더포럼 대표의 특별 강연과 1기 인턴종료 후 정규직 채용이 결정된 모션웅(인도 AA Studio)인턴의 사례발표도 진행된다.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은 8월 말까지 미국, 호주, 인도, 베트남, 가나 등 15개국 43개 한

상 기업으로 파견돼 6개월간 인턴ships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4월에 진행된 2기 면접에서는 최종 36명의 인턴이 채용돼 현재 각국의 한상기업에서 인턴ships을 진행 중이며, 이번 3기 면접에서는 현장 대면 면접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최종 70명의 국내 청년이 해외 인턴의 기회를 갖게 됐다.

주철기 이사장은 "재단은 철저한 사전교육은 물론 한상 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인턴ships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것"이며, "해외 인턴ships을 통해 국내 청년들이 자신의 소양을 더욱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Больше всего островным охотникам позволено добывать соболя. За год можно отстрелить 3886 особи. Меньше всего речной выдры — здесь позво-ляется отстрелить 149 зверьков. Годовая планка добычи бурого медведя установлена в 672 особи.

Карта добычи соболя выгляди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е всего можно подстрелить в Курильском городском округе — 619 шкуро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в этом районе угодья разделены на общедоступные (184 штуки) и частные (400 особей),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зволено добыть 411 особи. Соболя также можно добыть в Доленском районе,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округе, а также в Аниве.

По медведю и речной выдре расклад чуть-чуть другой. Меньше всего медведей можно подстрели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3 особи, охоты на выдру в столице вообще нет. На Курилах также можно до-быть только косолапых. В Южно-Курильском окру-ге—7 в общедоступных угодьях, 6 еще в частных.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 16 особей, Куриль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 64. Томари — 40 косолапых и 23 выдры, Тымовск — 37 и 19, Углегорск 29 и 5, Холмск 14 и 8, Смирных 43 и 18, Поронайск — 66 и 5, Невельск — 22 и 3, Ноглики 61 и 39, Оха 27 и 2.

Достаточно живо идет охота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Анив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ах.

Кроме того, регламентировано и количество ко-солапых, которое дозволено подстрелить в случае угрозы жизни людей. В этом списке находится 80 особей.

연날리기 콩쿠르의 우승자에게 4륜오토바이 무료이용권을

7월 22일 토요일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관 광단지는 <하늘> 연날리기 축제에 사할린주민들 을 초대한다고 주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우리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는 기술종목 스포 츠센터입니다. 이 축제에서 3 부분의 우승자들은 4륜 오토바이 무료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모든 참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아이스크림과 제 과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으로 비누거품놀 이와 바람개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나탈리 야 파홀코와 <고르니 워스두호>종합단지 판매부 장이 전했다. 축제에는 구입했거나 손수 제작한 연 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다. 연날리기 콩쿠르에서

심사위원회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수 자 신이 제작한 연>,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나는 연>, <가장 장난을 잘 치는 연>이다.

이날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관광단지의 행 사에는 참가자와 방문객들을 위한 유쾌한 콩쿠르 와 경기, 깜짝 선물과 사탕, 페이스 페인팅(얼굴에 문양 그리기)이 기다리고 있다. 오전 10시 30분부 터 11시 30분까지 <고르니 워스두호> 하부역부 터 중간역까지 곤돌라 무료탑승을 할 수 있다.

연날리기 참가 신청서는 7월 22일까지 [이메일 event.ski.gv@gmail.com](mailto:event.ski.gv@gmail.com)로 접수한다. 신청서에는 정명, 연의 이름을 적어야 하고 축제날 신청은 중간역에서 11시에 마감된다.

문의전화: 51-11-20.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воздушных змеев получат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катание на квадроциклах

В эту субботу, 22 июля,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на фестиваль воздушных змеев "Небо". Уже традиционно он пройдет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СТК в 11:00,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спорта.

—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наших партнеров является Центр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бедители в трех номинациях фестиваля получат подарочные серти-фикаты на бесплатное катание на квадроциклах. К тому же есть и поощрительные призы — мороже-ное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сладкие призы, а также развлечения для детей — мыльные пузыри и ветряки, — рассказывает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ро-даж Наталья Пахолкова.

В фестивале можно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как с покуп-ными, так и самодельными воздушными змеями. Оценивать конкурсантов будет специальное жюри по следующим номинациям: "Самый оригинальный самодельный воздушный змей", "Самый высокий и долгий полет", "Самый озорной воздушный змей".

В этот день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ждет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 веселые конкурсы и состязания, сюрпризы и сладости, аквагрим (бесплатно). С 10:30 до 11:30 действует бесплатный подъем с нижней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СТК.

Заявки для участия в конкурсе воздушных змеев необходимо прислать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адрес: event.ski.gv@gmail.com до 22 июля с указанием ФИО, названия воздушного змея. Регистрация в день праздник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в 11.00.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51-11-20.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 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 금주 BYA VIKTORIYA . (본사 편집부)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